



# 스페인, 구제금융 임박

이정환 선임연구원

■ 스페인은 지방재정 부실로 긴급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으나 극심한 자금경색으로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게 되면서 전면적 구제금융을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됨.

- 6월 말 스페인 부실은행권이 EU로부터 1,0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스페인 위기는 잠시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7월 20일 지방정부 재정 문제<sup>1)</sup>가 야기되면서 위기가 다시 부각됨.
  - 7월 20일 발렌시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데 이어 22일에는 무르시아를 비롯한 6개 지방도 긴급 자금지원을 요청함.
- 또한 10월 만기 도래하는 부채가 280억 유로(약 38조 9,000억 원)에 달해 EU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해짐.

■ 스페인 경제를 둘러싼 불안감<sup>2)</sup>이 확산되면서 국채 금리 상승, 국채 입찰 금리 상승, 중장기 금리 역전 등 자금경색 현상이 나타남.

-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7월 20~24일 3일 연속 7%대를 상회하며 잇따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<sup>3)</sup>하였고, 5년 만기 국채금리는 같은 날 한때 7.56%까지 치솟아 당시 7% 중반이었던 10년 만기 국채금리를 상회함.<sup>4)</sup>
- 7월 24일 단기 국채 입찰에서 3개월, 6개월 만기 국채(30억 5,000만 유로) 낙찰 금리는 각각 2.434%와 3.692%를 기록하여 종전보다 0.072%p, 0.454%p 상승함.

1) 스페인의 지방재정 부실화는 의무사회보장, 보건, 교육 등을 포함하는 사회공공서비스분야의 지출 확대와 지자체 SOC사업 시행에 따른 지방공기업 부채 증가에 비롯됨. 지방정부는 2007년 이후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비용과 부채를 감당할 수 없게 됨. 스페인 지방정부의 부채규모는 최근 5년간 연 15.2%에 달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2012년 1/4분기 현재 GDP의 17% 수준에 근접.

2) 취약한 경제전망, 부동산 거품 붕괴로 촉발된 지방재정 부실, 드러나지 않은 은행권 부실, 국채 수요 감소, 재정 감축 및 증세에 대한 반발 등으로 불안감이 확산됨.

3) 7월 24일 현재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7.63%를 기록하여 사상최고치를 경신

4) 중기 국채금리는 일반적으로 장기 금리보다 낮기 마련이지만 스페인의 단기 경제전망이 어려워지면서 역전현상이 발생

■ 그리스, 포르투갈의 사례와 전문가들의 분석으로 볼 때 스페인 정부 차원의 전면적 구제금융이 임박한 것으로 보임.

- 과거 사례로만 보면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은 임박한 것으로 추정됨.
  - 그리스, 포르투갈, 아일랜드의 경우 국채금리가 7%를 넘은 지 불과 20일 만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였으며, 2011년 2월 포르투갈의 경우 EU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 직전 중장기 국채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였음.
- 유로그룹(유로존 재무장관회의)은 스페인이 자금경색을 단기적으로는 견딜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평가함.
- ING는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이 9~10월 중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함.

(Bloomberg 등, 7/24)